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인권을 무시한 죄

(아모스 1:3 - 2: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한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까지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인간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섯 나라, 곧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범하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유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는 죄의 수를 말하기보다 죄가 점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에돔과 암몬과 두로와 가사와 다메섹은 이방 나라들로 율법 없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12)고 해석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하나님의 심판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섯 나라들에 대해 저들이 알지 못한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입니다.

(1)다메섹의 잔인한 죄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1:3)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이 범한 죄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형상대로 창조한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고 심문하십니다.

(2)가사의 인신매매의 죄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1:6).

블레셋에 있는 가사는 사람을 팔아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

람을 노예로 팔고, 창기로 팔고, 짐승처럼 값을 매겨서 팔았습니다. 오늘날 노예시장은 없어졌지만 인신매매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 중에 파멸치한 죄가 인신매매 죄입니다.

(3)두로의 증대업의 죄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1:9)

베니게에 있는 두로가 범한 죄는 수리아로부터 이스라엘 포로들을 사서 에돔에 팔아먹는 죄입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 두로와 히람과 계약을 맺고 ‘우리는 형제니 서로 치고 받지 말자’고 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로를 침범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4)에돔의 증오의 죄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1:11).

에돔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입니다. 에돔은 형제에게 칼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긍휼을 저버리고 노를 맹렬히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5)암몬의 강포한 죄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1:13)

임부의 배를 가른다는 것은 종자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6)모압의 무자비한 죄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2:1).

모압 사람의 잔인성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 갚는 방법으로 매장한 왕의 시체를 파내어 그 뼈를 불살라 버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나라의 죄목은 한 마디로 인권 침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너 가지의 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이 민족 사회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차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8 흥해작전 - 은혜 중에 계속돼

6월 6일(금)~11일(수): 자유 - 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약학)
 12일(목)~18일(수): 평화 - 허 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신약학)
 19일(목)~25일(수): 평화 -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평화를 주제로 허주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강단이 다음 주 수요일(18일)까지 7일 동안 계속 되고, 19일(목)부터 25일(수)까지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정의를 주제로 한 새벽 강단이 이어진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가정의 흥해를 앞에 두고 근심하는 모든 이들, 근심만 하지 말고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기 바란다.

2008년 흥해작전이 은혜 중에 기도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이번 흥해작전은 첫 번째 순서로 자유를 주제로 장신대 김철홍 교수의 새벽강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목요일(12일)부터는

다. 말씀과 기도의 장인 흥해작전은 25일까지 20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열린다.

21기 찬양대양성반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1기 찬양대양성반이 7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한다. 22기 찬양대양성반은 금년 가을 열린프로그램 개강 시 다시 개설될 예정이다.

오늘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감우균 김경희 김용현 김현주 김혜경 노순례 백경화 순혜숙 신명희 이인남 이재무 정수경 정정희
 (이상 13명)

서울교회 사진·비디오 촬영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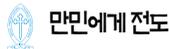
멀티미디어부에서는 서울교회 등록교인 중 사진 혹은 비디오 촬영에 재능이 있거나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를 찾고 있다.

봉사자는 사진동호회 조직을 이루어 교회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촬영대회 및 교육, 세미나를 통한 기술교류를 통해 보다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며,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 고해상도 카메라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서울교회 공식촬영 의상을 착용한 훈련받은 봉사자를 통하여 교회의 공식행사에 참여, 자료기록에 적극참여하고자 한다. 이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사무국에서 등록하면 된다.

제4기 설교사역도고세미나 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609호

제4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가 6월4일 개강했다. 설교사역도고세미나는 6주 동안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과 도고의 실제 등에 대해서 배운다. 강사로는 정수길 목사가 선다.



몽골교회 단일교단 설립 위한 신학적 기초를 놓다

지난 2일(월) 목회자 세미나 1교시를 마치고 바로 인천 공항으로 달려가 몽골의 울란바트르 공항에 밤 10시 40분에 도착하여 울란바트르 대학교 총장, 부총장,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단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대학교 게스트 하우스에 여장을 푼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밤 기온이 2도를 가리키고 있으나 체감온도는 영하를 밑돌았다. 난방이 안되고 더운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담요에 의지하여 새우잠을 잤으나 잠은 꿀맛이었다.

다음날 한국기독교 학술원 산하에 있는 울란바트르 대학교 12회 학위 수여식에 학술원의 부원장으로 참여하고 학교 시설을 돌아보니 피곤이 계속 쌓였다. 수요일 새벽부터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더해졌다. 그러나 저녁에 몽골복음주의 협의회 측에서 임원 및 이사 20명이 베푼 만찬과 환영회에 참석하면서 나는 한동안 한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착각을 할 만큼 그들 생김새는 우리와 너무 비슷하였다.

4일(수), 오전 7시에는 한국 선교사들의 조찬 모임에서 특강을 했다. 9시부터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몽골 인구는 300만 명, 그러나 땅은 남한의 16.5배이다. 그중 기독교 인구는 2.3%, 약 6만 명이 된다. 목사 총 수는 128명이다. 현



재까지는 교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Church of Mongolia를 세우려는 비전 제시와 그 신학 정립을 하겠다는 한국기독교 학술원의 선교전략이 현지 지도자들과 일치될 보게 된 것이다.

목회자 (목사, 전도사, 신학생, 선교사 포함) 250명이 모인 세미나에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총 6시간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리고 밤 집회는 교회 지도자들 약 천 명이 모여 말씀을 받았다. 몽골 교회는 공산당이 무너진 1991년에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신학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느 선교사나 강사든지 청빙을 받으면 자기 교회 신학을 심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종윤 목사는 세계적 복음 단체인 아시아로잔 위원회 의장이고, 현재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총무 등 중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KIMCHI세

미나 출신이며 아시아 로잔 대회에 참가한 이들도 있어, 이종윤 목사의 신학 강의는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이사회에서 허락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성경 신학의 기초와 교회론, 그리고 몽골 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방향 제시와 하나의 교단 설립을 위해, 작년 이종윤 목사가 초안한 한기총 공동신앙선언문을 몽골어로 번역하고 이를 work book 에 포함시키므로 Church of Mongolia 설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신학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한결 같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다. 이 목사는 Church of Mongolia 설립을 위한 기초자금(seed money)을 약속하고, 함께 동석했던 한국의 성도들이 즉석에서 5천 달러를 현금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몽골 교회가 하나로 묶여지면 세계 유일의 모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 5일(목) 울란바트르에서 새벽비행기로 출발하여 서울에 오전에 도착하였으며 이번 방문으로 몽골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초석을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종윤 목사

호국의 달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고석규 장로 (1교구)



6월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지는 동족상잔(同族相殘)으로 얼룩진 6.25 사변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국의 달에 잠시 회고의 끈을 풀고 현대를 살아가는 후진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6년 해방된 그 이듬해 부산에서 국군 제5연대 창군에 입대하여 당시의 혼란을 겪으며, 사변 전후의 모든 정황을 보고, 듣고, 참여하게 된 제가, 약 60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기억들을 더듬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성지구 정보 파견대장직을 수행할 때 김일성 공산집단은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를 등에 업고 김일성 특유의 공산주의 논리를 정립해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첩보를 다 동원하여 남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상부에 수시로 보고했으나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한에서는 좌우세력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분열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었고 한편 다른 계층에서는 무사안일주의로 열락에 빠져 경계의 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은 조만식(장로)선생과 남로당 괴수인 이주하, 김삼용(남과 간첩 빨치산)을 맞교환 하자고 제의하며 긴장을 누그러트리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체포에 안간힘을 쓰던 저들을 당시 방첩대장이 체포함으로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모든 것이 해결 된 것처럼 승리감에 빠져서 해이해진 가운데, 항상 비상경계 중이던 전방부대가 방심의 병에 걸려서 토요일이면 전원 외출 및 휴가로 38선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6월 25일(주일) 새벽5시, 완전무결로 준비된 북한의 남침



은 잠든 남한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남북한의 병력과 무력은 비교할 바가 못되어 패전, 또 패전으로 서울을 빼앗기고 속도를 더해가고 있었는데, 과속지세로 밀려오는 적군에 대항할 능력이 전무함을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은 구국일념으로 일본 동경에 달려가

맥아더 장군에게 도움을 간청하여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단숨에 낙동강 전선까지 진격하여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탱크를 폭파할 수 없는 재래식 무기체계로는 불가항력이었으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주사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보병의 로켓 포로 탱크를 격파하는 첫 번째 전술을 성공케 하셨습니다. 그 장본인이 김종표(현재 장로임)라는 나의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함으로 연장전을 지속하게 되고 그해 9월28일 저 유명한 맥아더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 남한은 수복되고 북진에 북진을 거듭하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또 다시 후퇴를 해야만 했습니다.(1.4후퇴) 거의 대전 인근까지 후퇴하였으나, 다시 반격 현재의 휴전선까지 진격, 휴전협정을 체결함으로 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기독교인은 약 8만여 명 정도였으나 모두가 하나 되어 새벽강단마다 울부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기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우리들이 날로 더해가서 오늘에 일천만의 신앙대국으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채찍으로 훈계하시었지만, 다시 두 팔 벌려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 세계 복음수출 1위국으로 쓰시고, 또 앞으로 온 인류를 향도하며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실 줄을 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성숙한 믿음으로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어서 오기를 합심하여 기도 합시다. 여호와 나시.

순교자 주일을 맞아

순교자의 길

“슬픔을 삼키던 한 여인의 멍든 가슴도 이땅의 순교자였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다는 할버트 선교사, 이화 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부인, 백성들을 위해 차별없는 복음을 전했던 무어 선교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H.B.할버트, '고향 땅에 묻히지 않고 왜 굳이 한국 땅에 묻히려 했는지...라며 고난의 땅에 와서 목숨을 다하기를 소원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역사를 회고 하면서 순교 주일을 맞아, 우리교회 서춘식 집사님의 선친과 할아버지께서 신사참배 반대와 공산당의 박해로 순교하신 60 여년 전의 신앙 여정을 순례자와 함께 거슬러 가본다.

조부 서경연목사님(금곡교회 : 황해도 송화)께서는 신사참배 반대와 공산당의 박해로 황해도 송화 금광굴로 끌려가 토굴 속에서 순교하셨고, 선친이신 서동원목사님(동부교회 : 황해도 재령)께서는 공산당



조부 서경연 목사



선친 서동원 목사

박해와 극심한 고문으로 1951년 6.25가 나던 해에 순교 하셨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조부모님과 아버님의 순교로 무자정 남으로 피난길에 발길을 옮기면서 흠어진 가족들과의 쓰라린 아픔을 오직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만 홀로 남으셨다. 가장 어려울 때 태

어나셔서 두분을 다 순교자로 하늘나라에 맡기신 어머니.

피난민 수용소에서 어린 막내아들까지 잃고 가슴을 뜯으며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5남매를 키우기 위해 고픈 배를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슬픔을 삼키던 한 여인의 멍든 가슴도 이땅의 순교자였다.

선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순교자 유산의 계대를 이어 가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서 집사는 한국교회 순교자 중의 한 분으로 계신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영적 도전을 불러 일으켜 본다.

정리: 순례자

홍해작전 기도

새벽을 열며...

최정인 집사 (2008 홍해작전 기획참모)

동트는 아침까지
어찌 기다릴 수 있겠나이까!
지금, 기쁨으로 눈 부비며
설렘으로 새벽을 열고
주님 계시는 전으로 달려가렵니다.

큰 귀도 열겠습니다.
뜨거운 가슴 소리들 들으려
마음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대하며...

이제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또 찬양하며
이어지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뜨거운 불꽃 되어 온 천지에 울릴 때

이제 우리는 나아갑니다.
손잡고 나아갑니다.
오직,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오리니.

그 무엇이 두려우리오.
감히 막아설 자 그 누구리오.
나라와 교회의 흥해, 개인과 가정의 흥해
마른 땅 되게 하시리니.

저 건너 승리의 언덕에 설 때
감사와 기쁨의 승전기를
우리 모두
함께 부르께 하옵소서.

특별 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콰이어 초청순서로 이루어진다.

연세콘서트콰이어는 1966년 광상수 교수에 의하여 창설된 한국 대학합창단의 효시가 된 합창단이며 우리나라에 직업합창단을 만들게 된 동기를 부여한 합창단이다. 국내의 합창단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연주를 경험한 합창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1968년 카네기홀에서의 연주를 비롯하여 동남아 그리고 미주지역 순회연주 등으로 한국 합창음악을 세계에 알렸다. 연세대학교 창립 123주년 기념 독일 순회연주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6월23일~7월10일=라이프치히, 베를린 등)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목) 장로교신학회 월례발표회를 소집한다.

■ 신동기권사(12교구) : '아세아 문예' 주최 시부문 신인상 수상

■ 이사: (2교구) 김원중 집사, 이갑연 집사 가정
논현동 162-13 402호

■ 득남: 6월3일 이미경 서영림 집사 가정(미국 미시칸주, 이종윤 목사 홍순복 사모 삼녀)

■ 득남: (1교구) 손한구 집사, 여이랑 성도 가정(2교구 손희창 성도 이신정 권사 아들 가정)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6.8) 바울 선교회(6.15)

■ 금주의 식사 : 하극수 성도 조영자 권사 가정
신종명 장로 이성애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만민에게 전도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희망을...

백승갑집사 (베드로선교회장)

이 땅에 태어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모든 이들이 기억하는 땅,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베드로선교회와 비전전도회가 연합하여 지난 31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리 소재 서흥교회(담임: 김광근목사)에 농촌전도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속, 우상에 찌든 산간벽지를 찾아 이곳에 복음전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3 곳의 군 교회를 개척하였고, 인근에 있는 부대 장병들의 예배인도, 신앙상담 등을 통해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오며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과 또 농촌교회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하며 김 목사님은 우리 서울교회에 수차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농촌의 젊은이와 아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계시어 빈 집들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아직도 농촌 오지를 지키며 목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서 목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복음전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면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는 아담한 마을... 논, 밭 사이를 가로질러 서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곳 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한 후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우선 진료를 받으실 어른들을 모시러 목사님과 함께 농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 평생을 힘든 농사일로 살아오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모시고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회관 안은 입시진료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동네어른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서흥교회는 우리 서울교회가 계속 지원해오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 중 한 교회로, 18년째 서흥교회를 담임하시는 김 목사님은 개척 당시 미신과 무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6.6-25까지 열리는 홍해작전 승리를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